# "두리형, 슬픔을 안겨줄게" 구자철 개막 선전포고 왜?

**25일 뒤셀도르프와 개막전서 맞대결**
**"몸 잘 만들어야 될걸" 차두리 발언에**
**물오른 구자철 "무조건 승리" 즉각 응수**

"(차)두리 형에게 슬픔을 안겨주겠다."

올림픽 축구 사상 첫 동메달을 따낸 홍명보호의 '주장'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이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했다. 구자철은 올림픽에서 거둔 환희를 뒤로 하고 새 시즌에 대한 다부진 각오를 드러냈다.

구자철은 곧장 팀 훈련에 합류해 개막전 출격을 준비할 예정이다. 2012~2013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개막전은 25일. 아우크스부르크의 상대는 2년 만에 독일 무대로 복귀한 차두리(31)의 소속팀 뒤셀도르프다. 개막전부터 한국 선수끼리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구자철은 "(차)두리 형과 최근 통화를 했다. '몸을 잘 만들고 와야 뒤셀도르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고 하더라. 경기에 출전하게 된다면 팀 승리는 물론 뒤셀도르프에 슬픔을 안기고 싶다"고 말했다. 차두리의 도발적인 발언에 웃음과 함께 즉각적인 응수를 벌인 것이다.

구자철은 지난 시즌 기록한 5골 1도움 이상의 성적을 자신했다.

"개인적으로 두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싶다. 축구팬들의 기대감이 큰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것이다. 소속팀은 지난 시즌(14위)보다 나은 성적을 올리는데 공헌하고 싶다. 강등권을 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대 1년 안에 뭔가를 해내고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을 보낼 것이다."

올림픽에서의 선전이 그에게 큰 자신감을 선물했다.

구자철은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가 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또한 더 좋은 활약을 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자신감을 크게 얻었고, 커 나가는 과정이다. 더 큰 선수가 될 것이다"고 포부를 전했다.

다만 구자철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런던올림픽 기간 동안 사흘 간격으로 6경기를 치르느라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올림픽팀과 함께 귀국한 후에도 여러 환영 행사와 만찬 등에 참여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몸이 많이 피로한 것은 사실이다. 리그 갔을 때의 피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이고, 경기장에서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다."

이날 구자철의 출국장에는 왼 무릎 십자인대 부상으로 올림픽팀에서 낙마했던 홍정호(23·제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홍정호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구자철과 함께 생활하며 3개월 동안 재활에 전념할 예정이다.

한편 구자철은 이날 공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아버지 구광회씨가 공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한 것이 인연이 됐다. 구자철은 "아버지를 통해 늘 공군을 동경해왔다.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 박상준 기자 spark47@donga.com 트위터 @sangjun47

올림픽팀의 주장 구자철이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공군 전투복을 입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연합뉴스

편집 | 안도영 기자 ydalove@donga.com 트위터@sd_do02

# 선두 서울 "7연패 없다" VS 4위 수원 "상위권 도약"

〈최근 수원전 6연패〉

**■ 내일 오후 7시 K리그 28R 자존심 대결**

## 득점 1위 데얀-서울 킬러 스테보 맞불 숙명의 라이벌전 팬심 잡기도 총력전

슈퍼매치가 펼쳐진다.

FC서울과 수원 삼성이 18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28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선두 수성을 노리는 서울과 상위권 도약을 노리는 4위 수원의 양보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다.

**●데얀이냐 스테보냐**

양 팀 공격수 데얀(서울)과 스테보(수원)를 주목하자.

데얀은 19골로 올 시즌 K리그 득점 1위. 명실상부 K리그 최고 공격수다. 그런데 큰 경기에 약했다. 데얀은 수원과 라이벌전에서도 3골을 넣었지만 큰 임팩트는 없었다. 서울 최용수 감독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데얀이 큰 경기에서 결과를 만들지 못했는데 그걸 깼으면 좋겠다. 평소의 70%만 해줘도 좋다. 큰 경기에서 주목받는 모습을 보고 싶다"며 분발을 촉구했다.

반면 스테보는 서울전의 사나이다. 최근 서울과의 경기에서 3경기 연속골(FA컵 포함)을 기록 중이다. 그러나 스테보도 최근 부진했다. 무더위에 약해 7월 이후 1득점뿐이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스테보는 최근 수원 윤성효 감독에게 "이제는 기대해도 좋다"며 각오를 밝혔다고 한다.

**●팬심을 잡아라**

서울과 수원은 K리그 최고 라이벌이자 인기구단이다. 상대에 패하면 그만큼 타격이 크다. 슈퍼매치에서 승리해 팬심을 잡아야 한다.

FC서울 최용수 감독(왼쪽)과 수원 삼성 윤성효 감독이 16일 슈퍼매치(18일)에 앞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악수를 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은 6월 FA컵 16강전에서 수원에 패한 뒤 곤욕을 치렀다. 당시 K리그 선두권이었지만 홈 서포터들이 구단 버스를 가로 막았다. 최근 수원전 6연패(FA컵 포함) 때문. 특히 최근 4경기 연속 무득점에 팬들이 폭발했다.

수원도 최근 한 달 간 홈 팬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수원이 K리그에서 연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자 홈 팬들이 공개적으로 감독 퇴진을 요구했다. 수원은 10일 단장과 사무국장, 홍보팀장이 서포터 대표를 만나 앞으로의 구단 비전을 설명했다. 서포터들은 본연의 임무인 서포팅에만 충실하기로 했다. 수원은 11일 홈에서 상주를 누른 뒤 윤 감독과 선수단이 서포터석으로 가서 박수를 받았다. 수원 관계자는 "서포터와 구단의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제 경기력으로 보여주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트위터@Bergkamp08

## SKT, 박태환에 1억6000만원 포상금

'마린보이' 박태환(23·SK텔레콤)이 후원사 SK텔레콤으로부터 포상금 1억6000만원을 받았다.

SK텔레콤은 16일 서울 을지로 SKT 타워에서 2012런던올림픽 수영 남자 자유형 200m와 400m에서 2개의 은메달을 딴 박태환에게 이같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 박태환의 선전을 기원한 팬들의 응원 및 격려 메시지를 담은 액자를 함께 전달했다.

2007년부터 박태환을 후원한 SK텔레콤은 2009년 재계약 당시 세계선수권대회 및 런던올림픽 성적에 따른 포상금으로 금메달 1억5000만원, 은메달 8000만원, 동메달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펜싱단체 金 주역들 7000만원씩 공단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은 17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 기념관에서 2012런던올림픽에서 펜싱 단체전 사상 첫 금메달이자, 한국의 동·하계 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획득한 공단 소속 김정환(29) 오은석(29) 구본길(23)에게 포상금 증정 행사를 연다. 공단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펜싱 선수들에게 개인당 7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KT스포츠단, 주영범 신임단장 임명**

KT 스포츠단이 16일 신임 단장에 주영범 상무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주영범 신임 단장은 KT그룹 홍보실을 거쳐 윤리경영 담당 및 홈 고객 부문 경기북부 마케팅단 단장을 지냈다. 전임 권사일 전무는 KT그룹 경영지원실장을 맡는다.

**전 포항 수비수 장현규 심장마비 숨져**

전 포항 스틸러스 출신 장현규(31)가 16일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2004년 대전 시티즌에 입단한 장현규는 주전 수비수로 나서며 101경기에 출전했다. 그러나 2010년 광주 상무에서 승부조작 가담 사실이 밝혀지면서 작년 8월 프로연맹으로부터 영구제명을 당했다.

**4승도전 김자영 넵스 마스터피스 1R 43위**

시즌 4승에 도전하는 김자영(21·넵스)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넵스 마스터피스(총상금 6억원·1억2000만원) 첫날 부진했다. 김자영은 16일 강원도 홍천 힐드로사이 골프장 버치·파인 코스(파72·6624야드)에서 열린 넵스 마스터피스 1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쳐 공동 43위에 그쳤다.


새로운 원격조종 첨단 네트워크 CCTV

● IP카메라/ 네트워크용 CCTV 특허 10-0907741호/ 특허 10-0859539호/ 특허 10-0853511호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국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다면 원격으로 현장확인이 가능하며 카메라를 원격조종(좌우 270도, 상하 120도), 통화도 할 수 있는 최첨단 CCTV입니다.

통신산업 30년 전통의 (주)대명전자통신에서 만든 첨단CCTV
2012년, 특허기술을 이용한 네트워크 CCTV인 대명 IP카메라는 출시부터 CCTV시장에 화제를 몰고 왔다. 네트워크 CCTV는 저가의 화상카메라와 달리 최대 9대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추가확장 가능) 적외선 IR이 내장되어 주야에 관계없이 선명한 영상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움직임 감지기능(모션 디텍트) 재택으로 불청객으로부터 현장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스피커, 마이크를 내장하고 있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양방향 통화도 가능하다. Wifi환경에서 실치가 가능하며 화재경보기와 연동(옵션 별매)시키면 현장상황 전송이 가능하다. 24시간 무한녹화가 가능하며 본사에서 운영중인 써버로 원격세팅이 무료지원된다.
본체나 메모리로 확인해야했던 불편함을 덜어 준 대명IP카메라는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외부에서 현장을 실시간 검색하는 시대를 열어주었으며 남보다 앞선 첨단원격조종 CCTV를 설치하고자 했던 고객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Made in KOREA
제조원: 대명전자통신(주) DAE MYOUNG ELECTRONICS TELECOM CO.,LTD

◆가정용, 학교, 학원, 사무실, 창고, 매장,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경노당, 병원, 식당, 노래방, 편의점 등
◆집에 혼자있는 아이나 부모님이 걱정되시는 분, 여러개의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사무실, 가게를 혼자 운영하시는 분, 창고등의 사각지대 감시

대명 CCTV IP카메라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 등 스마트폰 전용앱 제공
● 무상으로 전용 앱 제공
●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원격 감시
● 카메라도 원격조종, 좌우 270도, 상하 120도 회전시키면서 현장을 감시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실행
대명 IPC 전용 USB
● Flash Memory Stick 4GB
● 실시간 화면보기/ 녹화 프로그램 내장
● 분실방지기능/ 자동실행, 복구기능
● 이동식 저장장치로 활용
● 41(W)x15.5(H)x7.2(D)mm

본체(품명: DM-30WIP)
● Built in Pan/ Tilt
● 좌우 270, 상하 120 회전기능
● 적외선센서- 야간감시
● MPEG 영상압축방식
● 실시간 현장감시, 움직임 녹화
● 전용 USB 연동/ 스마트폰 뷰어
● 100(L)x100(W)x120(H)mm

구입문의 무료전화: 1661-1948
입금계좌: 농협 356-0581-3286-33 오진석
대리점 및 딜러문의: 1644-2464
판매원: 통신판매 서울0029호 썬앤씨 E-mail: kakaose4@naver.com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EP-150
오늘 30%할인 행사
10단계 미세음량조절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자유롭게 볼륨조절하여 사용하세요
이어패스 EP-150 新製品
필요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건전지가 필요없는 충전식(고속충전, 장기간 사용)
간편한 휴대성, 약 30배 전자증폭기능
손쉬운 원터치 작동방식으로 간편히 사용
양쪽귀로 고음질 청취 확장이어폰 연결시
이럴 때 사용하세요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하여 듣고 싶다.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사용한다!
9G의 초소형, 초경량으로 무게감이 적어 사용시 편리하며 휴대가 용이하며 충전식으로 배터리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으로 멋스럽다!
심플하고 세련된 인체공학적 디자인, 블루투스형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음성증폭기를 착용한것 같지 않아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음질과 성능이 더 좋아졌습니다!
기존 제품들의 단점을 더욱 보완하여 음성의 하울링과 잡음들을 많이 개선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한 최신제품입니다.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주파수대역: 40~20,000Hz
◆사이즈: 18x55x8mm ◆무게:9g
제조원: 디지웨이 (Made in KOREA)
통신판매 서울0029호 썬앤씨 E-mail: kakaose4@naver.com
대리점문의 : 1661-1948
구입문의 무료전화: 1661-1224
입금계좌:농협 356-0269-5761-53 김영희

살을 빼는 것 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쪄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배도 약간 나오는 것이 웬지 안정감있고 품위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처지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은 아이에게 고른 영양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흡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매사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되어 적절한 체중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릴 때 아마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 유전적 특이성이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계를 살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유전적인 특이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으나 유전적인 특이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다.
▶ 정서불안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텐데 정서적으로 편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공급이 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찌오 1kg 1개월분
허약하거나 체격이 빈약하면 밖에서 자신이 없는 법! 당당한 체격이 부러우십니까? 흡수가 빠른 체중증가에 「살찌오」 체중늘고 힘도 솟아!
살찌오 salzzio
「살찌오」 구입문의 상담전화: 1644-2464
입금계좌: 농협 356-0581-3286-33 오진석
통신판매 서울 0029호 썬앤씨 E-mail: kakaose4@naver.com
SBCR KS Q ISO 9001:2008 CERTIFIED
3억원 생산물배상책임보험 LIG 손해보험
새서울신문 친환경식품전파부문대상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지네틱팜 Korea Genetic Pharm Co., Ltd.